

2010

12월 19일

제18권 51호

마데데스

14년 14월 14일 14시에 14분 14초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칼럼 column

나무를 보지 말고 흙을 보라 ②

지금의 교회 현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결과에 집착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토대가 허물어지는 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토대는 상관없이 결과가 좋으면 나무 또한 좋은 것으로 입증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일에만 집착 하는 것이다.

현대 교회가 열정이라는 것을 품고 활동하는 것들을 보라. 과연 교회의 모든 활동과 열정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조그만 흔적이라도 볼 수 있는가?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는 명목으로 움직이지만 사실은 인간을 위한 욕망의 흔적들일 뿐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잘못된 흔적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실상이다.

교회의 토대는 그리스도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전 3:10,11)라는 말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

만약 이 토대가 엉망이라면 그 토대 위에 세워진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열매의 좋고 나쁨을 가시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무조건 크고 많으면 된다고만 생각한다. 그래서 온갖 농약과 화학비료를 동원해서라도 더 크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에만 집착 한 채 열매만 바라보면서 엉망이 되고 오염된 토대위

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

현대 교회는 토대 자체가 엉망이다. 세상의 자본주의 사고방식과 성공주의에 오염되어 깨달음이라는 것은 도무지 기대할 수가 없다. 아니, 십자가의 도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 땅이 농약과 화학 비료에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온갖 어설픈 것들을 토대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오염시키고 중독되게 하는 모든 농약과 화학 비료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기고 있을 뿐이다.

현대 교회에 필요한 것은 기루라 아키노리가 10년의 고생 끝에 풍성한 자연 토양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목격했듯이 잘못 의지했던 세상의 허상에서 벗어나 예수의 복음으로 들어가 복음이 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

이것을 위해 교회는 기존에 의존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부동의 상식으로 여겼던 지식들, 교회를 오염시키고 중독되게 하는 세상의 모든 허상들과 사고방식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진리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한 그루의 나무로 자라야 한다. 그러면 그 나무에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생명을 발산하는 토대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토대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421-9049 425-9049 070-7648-9049

<http://onlycross.net> 신윤식목사 sys5806@hanmail.net 019-832-9049

주일낮 설교



교회와 죄 마 18:15-20

사람이 모였을 때 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은 죄입니다. 두 사람이든 백 사람이든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 인간의 본질인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눈을 뜬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타인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 더 나은 인간으로 높은 위치에 도달하려는 욕망이 인간이 본질로 자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은 항상 타인과 경쟁 관계에 있게 된 것입니다.

타인이 자신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 받게 되면 시기와 함께 분노가 있게 됩니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라며 상대방과 자신을 평가하면서 스스로를 높은 위치에 두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성은 세상에서 물질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을 치장하고 소위 명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람이 그 어떤 인간관계도 맺지 않고 홀로 생활한다면 어떨까요? 일단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타인으로부터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외적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경쟁도 불필요할 것이고, 타인으로 인한 시기나 분노와도 무관해 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라는 문제로 질문을 했던 것도 제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가 단 한명이었다면 그러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홀로 생활한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 존재 가치를 의식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어느 순간 인간관계에 뛰어 들게 되면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관심이 욕망으로 자리하면서 경쟁과 시기와 분노가 여지없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실존으로 자리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본질에 대해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아닌 세상에도 인간관계는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의 실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존재 가치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가치를 격상시키기 위해 사는 것을 '자기 개발'이라고 하면서 사회생활을 위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자기 개발이 자신을 타인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서 차별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인간성으로 인해 항상 '누가 크냐' 라는 경쟁 속에서 작은 자와 큰 자라는 차별이 있게 되고, 그러한 차별은 결국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인간관계의 구조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인간 가치를 둘러싼 차별적 평가와 시선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다른 점은 교회에서의 인간관계가 단지 인간만의 관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세상과 다른 인간관계로 나타나야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죄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싶은 마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크게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신자에게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양심적이고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라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온

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죄를 실존으로 하고 있는 부패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아래 믿음이라는 명목이라고 모인다고 해도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죄는 당연히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경쟁, 시기, 차별, 분노, 미움,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라는 말씀이 그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은 자에 대한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또 왜 작은 자를 무시할 수 없는 지에 대해 들었다고 해도 우리에게서 여전히 큰 자 작은 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작은 자를 무시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한 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항상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떤 죄냐는 것은 무의미한 물음일 뿐입니다.

또한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이 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을 목격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공동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에게 죄를 범한 것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 또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것이든 제 삼자에게 죄를 범한 것이든 중요한 것은 '교회에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먼저 나와 그 사람과만 상 대하여 권고하라고 합니다. 즉 일대 일로 만나서 죄에 대해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권고를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은 것과 같지만, 받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고 합니다. 이것은 신 19:15절에 있는 율법에 의한 방식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이 방식대로만 하면 교회에서의 죄 문제는 해결될까요? 죄를 범한 자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해 권고하면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그 충고를 받아들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죄 문제는 그의 존재 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에 대해 충고할 때 인정하면서 회개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만약 죄에 대한 권고를 듣지 않아서 두 세 사람의 증인을 대동한다면 확고하게 드러난 죄에 대해 인정할까요? 아마 자신을 몰아붙인다는 생각이 앞서면서 더 크게 반발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교회에 말을 해서 온 교회가 자신의 죄에 대해 권고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한 방식으로는 자기 보호본능으로 뭉친 인간성을 자극하는 것일 뿐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교회가 죄에 대해 권고를 해도 받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출교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를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면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먼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이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의미인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나타난 이방인과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이방인과 세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대한 실천이 의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이방인과 세리는 죄인으로써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아니면 안되는 존재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은 교회에서 출교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용서가 아니면 안되는 존재로 여기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고나 충고를 받아들이면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방어적인 행동으로 일관합니다. 타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로만 죄가 해결되는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주지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부터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절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죄를 범한 후 땅과 하늘은 단절된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땅은 죄로 인한 사망으로 가득할 뿐 하늘의 생명과는 상관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땅은 하늘과 통하게 된 것이고, 그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시는 이것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이 관계 안에서 모이는 것이고 그것을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실감하고, 따라서 예수님의 용서만이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을 구하게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용서를 근거로 하는 모임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길 때 용서가 가능합니다. 아니 서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것이 곧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되는 불쌍한 존재로 여기면서 주의 용서로 기뻐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 중에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설교



떠나라

살후 3:6-18

(8강 11.28일 설교)

인간관계에는 만남과 떠남이 반복됩니다. 좋아서 만나기도 하고 싫어서 떠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싫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만나는 것도 있고, 좋아하지만 할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도 떠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가 본문에서 언급합니다.

6절에 보면 “형제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 같은 내용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로서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이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주의 뜻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할 정도면 교회에 해를 끼치는 아주 악한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재림론을 가지고 신자를 미혹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현대 교회가 경계하고 있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경계하면서 떠나라고 하는 그 대상은 사도의 말대로 하면 게으르게 행하고 사도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도가 말한 이들이 진심으로 신자가 함께 하지 말고 떠나야 할 악한 자라는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사도가 말한 이들이 떠나야 할 악한 자라는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게으르고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사도의 말에 담겨 있는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 교회를 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비 복음적이고 비 성경적인 말들로 가득한데도 그 말의 심각성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예수를 쫓는 이유가 육신의 이익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든 복음이 아닌든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에 부합되는 말이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안고 있는 심각성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즉 모세를 세워서 이루신 출애굽을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재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분명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는 사도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8절을 보면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스스로 수고하며 일하여 음식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즉 먹을 것을 교회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렇게 한 이유는 9절에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 말하는 것처럼 사도로서의 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도 되는 권리로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본을 보인 것은 스스로 수고하여 일하며 복음을 전한 ‘자비량 선교’가 아니라 사도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도 되는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목사가 목사라는 위치를 교회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으로 여긴다면 사도의 본을 받지 않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목사에게 복음을 원한다면 목사는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육신을 위해 복음을 감추고 가공하면서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말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곧 교회에 폐를 끼치는 것이 되고, 그것은 게으름에 해당됩니다. 설사 교회가 복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신자의 생명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목사의 봉사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을 위해 타인에게 폐를 끼쳐도 된다는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괴로움의 결과가 예상된다고 해도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도가 가르친 전통대로 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죽으시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며 복음이 안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의 신자의 관계에는 그 어떤 권리 주장도 없게 됩니다. 목사라는 권리, 장로라는 권리, 권사 집사라는 권리 주장이 없게 됩니다. 오직 서로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는 관계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자기 편함이나 권리로 인해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게으르고 사도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끊고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는 말도 세상이 말하는 노동과 그 대가의 관계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복음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노동에 대한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노동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노동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편한 인생이 약속된 것이 아니라 수고하여 먹고 살 수밖에 인생이 죄의 몫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평안의 인생을 사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소망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보다는 평안을 누리는 인생의 행복을 꿈꿉니다. 이것이 일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잊고 있는 것이 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고 일하는 세상일을 의미 없는 것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가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에 충실하면서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알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고방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탄이 활동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한 몸 편히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대한 단일한 생각으로 자신의 편협만을 추구한다면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안일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으로는 생명의 세계를 맞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4,15절을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고 말합니다.

사도의 말대로 하면 신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듣기 좋은 아침의 말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함께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안일을 추구하고, 편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도 복음 안에서는 마땅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신자는 예수님에게서 평강을 찾을 것이고 예수님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수요일

설교



화 있을진저

합 2:5-20

(4장 12.8일 설교)

하나님은 세상에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있게 되면 심판으로 인해서 화를 입을 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가 화를 입을 자들일까요? 6절을 보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

씀합니다. 사람은 세상 것을 모으기에 힘씁니다. 많이 모을수록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를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소유 아닌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소유를 늘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9절을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이름을 내고 흠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성은 항상 자신에게 닥칠 재앙을 피하기 위해 더욱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부당한 이익이라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12절을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성을 튼튼히 크게 건축하기 위해서 약자가 피를 흘리는 것도 불의를 행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누가 희생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자신의 집을 든든히 하는 것만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직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고 이러한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웃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웃에 대한 비방과 욕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웃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 비방하고 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생명이 없는 것을 힘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화 있을진저’ 라는 이 말이 선지자에게는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유다 또한 ‘화 있을진저’ 에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하지 않고 제물을 바치지 않는 자는 화 있을진저’ ‘십일조를 바치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하셨다면 유다는 이방 나라와 구별되면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 있을진저’ 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 앞에 서면 유다와 이방인의 구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

다 역시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도 욕심으로 살았고 자신을 위해 살았고 자신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약자의 피를 흘리고 불의도 마다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 것입니다.

그들이 잘한 것이 있다면 다만 율법에 따라 제사하고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오해한 것이 이것입니다. 1:12절에 보면 선지자는 자신들을 사망에 이르지 않을 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심판을 위해 예비된 자들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겪는 현실이 부당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생각을 뒤엎습니다.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결국 누가 심판에 해당되는가를 묻는다면 모든 인간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합니다. 누가 의인일까요? 분명한 것은 의인은 실천과 행함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천과 행함을 기준으로 의인을 구분한다면 그 누구도 의인으로 불려질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욕망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길 실천과 행함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자신의 존재성을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는 악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악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가 바로 의인으로 여김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믿음이 전부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 안에서는 권력도 소유도

실천도 행함도 무용지물입니다. 권력이나 소유, 우리의 알팍한 실천이나 행함을 가지고는 밀려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절실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믿음위에 세우기 위해 간섭하십니다.

유다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 하박국의 기도가 진노 중에서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유다의 고통을 부당한 것으로 여겼는데, 유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되는 존재임을 알게 되자 진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구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부터 물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복을 요구하십시오. 복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복을 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가 과연 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진노 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당연합니다. 그런 우리를 진노에서 건지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런 신자에게 믿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 밖에 없습니다. 재물도 권력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심판에 속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임을 믿기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자는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 믿음이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무한하고 넘치는 복입니다.

주일 낮 예배

오전 11시

인도 /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 함 께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73장
교 독 문	19(시32)
기 도	조규현 장로
찬 송	432장
성경봉독	마 18:15-20
설교제목	교회와 죄(117강)
기 도	설 교 자
찬 송	285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2장
축 도	설 교 자

성탄절기도 : 이영민 장로
다음주기도 : 이영익 장로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20

인도 / 신윤식 목사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286장
기 도	박위선 권사
찬 송	428장
성경봉독	몬 1:8-20
설교제목	와해의 길(3강)
기 도	설 교 자
찬 송	436장
주기도문	다함께

다음주기도 : 장영옥 권사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인도 / 신윤식 목사

스바냐 강해(1강)

간절한 소원

신윤식



메마른 마음 여기저기에는
아직도 쓰레기로 더럽혀져 있어
어수선한 마음 평안 못 찾아
방황만 할 뿐이고

그런 날엔 겨울 찬 기운에
정신을 곤추세워 눈빛을 맑히고
상념의 끝을 누르며 나를 불러 세워
맞서 묻기도 합니다.

어느 곳으로 흘러가는지
흘러가는 어수룩한
내 삶의 길을 바라보다
흠칫 놀라 가슴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봐도
나는 나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다른 길이 없어
내게 다가온 당신만 바라봅니다.

당신이 길이라면
그 길에 생명의 물길 열어주어
그 길 따라 흐르게 해주오
간절한 소원 하나 마음에 심습니다.

교회소식

1. 2011년 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 25일(토)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 있습니다.
3. 오후 예배 후에 전 교인 저녁 외식이 있습니다.



예 배	시 간	예 배	시 간
주일 낮	오전 11:00	어린이	오후 1:00
주일오후	오후 2:20	장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수요일	오후 7:30	청년성경공부	(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8:00